

# 메네, 메네, 테켈, 우파르신 MENE, MENE, TEKEL, UPHARSIN

성경에서 벨사살 왕의 잔치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벽 위에 신비로운 글이 기록되었다. 이 아람어 언어들로 “헤아려지고 또 헤아려졌고, 또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고 글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다. 다니엘이 해설한 그것의 참된 뜻은 왕의 행동들이 저울에 달아졌고 또 부족함이 나타났으므로 그의 왕국이 나누어 질 것이다. The Columbia Encyclopedia, sixth Edition. Copyright © 2001-05 Columbia University Press.

##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대총회에게 보내는 공개장 An OPEN LETTER to the General Conference Seventh-day Adventists

“어떻게 [바벨론]이 탈취되었는가! 또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온 세상이 경악하고 하나님께 찬미하였는가! 어떻게 바벨론이 전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놀랍게 되었는가!, “어떻게 온 세상이 충돌하며 절단되어 나누어지고 멸망하였는가!” “어떻게 바벨론이 전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황폐하게 되었는가!” “바벨론의 매력 있는 큰 소리에 세상이 움직였다.”

“바벨론이 갑자기 타락하고 멸망하였다.” “약탈자가 실제로 바벨론 그녀에게 닥쳐왔으며, 또 그녀의 용사들이 포로가 되었고, 그들 각자의 모든 검들이 꺾어졌다: 보상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보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그녀의 거장들과, 또 그녀의 지혜 있는 사람들과, 그녀의 지도자들과, 또 그녀의 용사들을 독주에 취하도록 만들 것이고: 또 그들의 잠이 깨어날 수 없는 영원한 잠이 될 것이라고 만군의 주이신 왕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대를 위하여 올라미를 놓았고, 또 그대가 또한 붙들렸으나, 오 바벨론이여, 그대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며; 그대가 발견된 바 되고, 또 역시 붙잡힌 이유는 주를 거역하여 분투하였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분의 병기고를 열고 그분의 분노의 병기들을 운반하여 내었다: 이것이 [야웨] 만군의 주께서 바벨론 땅에 행하시는 사업이다.”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의 자손들이 함께 압도당하였다. 그리고 그분께서 급속히 그들 모두를 꼭 붙들어 사로잡아 구속하셨으므로; 그들이 그들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들의 구주는 강하시다: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주 [야웨]시다: 그분께서 그들의 법정 소송 사건에 대해 철저히 항변하실 것이며, 바벨론에서 거주하는 자들이 동요하였고, 또 그분께서 땅이 안식하도록 하실 것이다. 에레미야 51:41; 50:23, 46; 51:8, 56, 57; 50:24, 25, 33, 34.

“내려와 티끌 속에 앉으라. 오 바벨론의 처녀 딸아,  
땅에 앉으라, 거기에는 보좌가 없도다...  
너는 조용히 앉고,  
또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오 [바벨론]의 딸이여:  
네가 더 이상 “왕국들의 귀부인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가 내 유업을 더럽혀서, 네 손에 주었도다:  
네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였도다;...

또 네가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귀부인이 되리라.”하여:  
이런 일들을 네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고,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들으라,  
환락에 내어 준 너는  
태평하게 살며,  
마음 속에 말하기를,  
나 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주저앉지도 않을 것이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그러나 한날, 한 순간에 이 두 가지 일,

즉 자녀를 잃는 일과 과부 되는 일이 네게 임하리라:  
그 일들은 네가 무수한 마술들과 허다한 마법들을 베풀지라도 온전하게 네게 임하리라.  
이는 네가 네 사악함을 의지하고:  
네가 말하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였음이라.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패역케 하였으니;  
네가 네 마음 속에 말하기를,  
나 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악이 네게 임하여도 너는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를 것이며,  
재앙이 네게 닥칠 것이나 너는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겠고, 또 과멸이 네게 갑자기  
임하여도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는 네 젊은 시절부터 애썼던 네 마법들과 무수한 마술들을 가지고서;  
네가 그렇게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네가 그렇게 이길 수 있다면, 이제 저항해 보라.

네가 많은 모략들로 인하여 피곤하게 되었고도다.  
이제 점성가들과 별을 보는 자들과 매달 징조를 예언하는 자들을 일으켜서,  
네게 일어날 일들로부터 너를 구원하게 하라.  
보라, 그들이 그루터기같이 되리니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들은 불꽃의 위력에서 자신들을 구해 낼 수 없으리라...  
아무도 너를 구해 주지 못할 것이라.” 이사야 47:1-15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세상에 의해서나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혹은 과거 한때의 상태에 의해서 평가할 수 없다. 현재의 교회의 믿음과 세상에서의 그 위치는 만일 교회가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향상했을 것 같으면 그들이 될 수 있었을 뻔했던 그 상태와 비교되어야 한다. 교회는 성소의 저울에 달려질 것이다. 만일 교회의 도덕적 특성과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특권과 축복에 상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다. 빛은 교회가 가는 길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비추어 오고 있다, 그리고 [2007]년의 빛이 교회에 책임을 요구한다. 만일 교회가 그의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교회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할 것 같으면, 만일 교회의 빛이 어두워졌을 것 같으면, 교회는 분명히 부족함이 드러나게 된다.” [5T 83,84]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성소의 저울에 달려져야 한다. 그녀는 자기가 갖고 있던 특권들과 편익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 교회의 영적 체험이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댓가로 그녀에게 주신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만일 주어진 축복들이 그녀에게 위탁된 사업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다면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선고가 교회에게 발하여질 것이다. 교회는 그가 받은 빛과 주어진 기회들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8T 247]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언어들은, ‘테켈; 너를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나 함이요.’ 기록하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 법의 표준에 준하여 사람에게 시험한 것이다. 이 법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하여 말하는 것은, ‘네가 행하여야 할 것이 있고, 또, 네가 행하면 안될 것’이 있다. 이 법이 두 큰 원칙들 안에서 요약된다. ‘너희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의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의미들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 오 얼마나 적은 수가 큰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법에 잘 대응하여 준비될 것인가! 만일 주께서 부르신 대로 개개인들이 준비한 사업들을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감당하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죄들을 피할 수 있었는가!

형제 자매들이여, 낮과 밤중에, 특별히 밤중에, 이 문제가 나에게 제시되었다. 테켈; 너를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어찌면 성실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대단하게 기만당하였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소 사람인 사울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할 때 성실하였다. 그가 선언하기를, ‘나의 참된 생각으로’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여러 가지 일을 행하여야 되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가 그의 무지 안에서 성실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분자신을 그에게 드러내셨을 때, 그가 선언하기를,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노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나는 그 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 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Advent Review and Sabbath Herald, March 8, 1906, p. 8]

“주께서 나에게 설명하여 주신 것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원하는 대로 수행하여, 거짓 진리를 전하고, 그들의 형제들을 탄압하고, 또 그들 앞에 장애물을 놓는다. 지금 그들의 성품이 실제로 개발되었고, 또 사람들이 측면을 택하고, 어떤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을 택하며, 어떤 자들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편을 택한다. 그분의 법에 순종할 참된 모든 자들이, 그들 자신들을 적의 편에 놓고 함께 하였던 모든 친교로부터 떠나서 나오라고 주께서 부르신다. 그들의 이름을 대적하여 기록되었으되, ‘테켈; 너를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Letter 256, August 1, 1906]

“주께서는 사악한 행위들을 계속 실행하는 자들에게 책망과 경고 없이 묵인하지 않으신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책망들과, 경고들과 심판이 보내어진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다른 자들을 본보기로 처리하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습관들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들을 성취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들이 계속 그들 자신들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무시하고 그들 자신들의 소양들대로 실행에 옮겼다. 그들이 옳은 길에 대하여 무지하지 않았으나, 그들이 그저 그들의 눈들이 멀도록 하였다. 이것들 위에 심판을 언명하여, 사악한 왕 [벨사살]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역하여 자신을 높였으며;...]’” [Advent Review and Sabbath Herald, September 24, 1908]

“교회 안에 있는 [신실한 증인들이]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설정하므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친구들이 되든지 또는 적들이 되든지 어느 쪽을 택하도록 할 것이다. 비록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곧바로 엄숙한 증인이 필요하므로, 그분께서 명령하실 때, 그들의 태평을 유지하지 않고, 진리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에 유의하여, 그들의 죄와 불의를 책망할 것이다,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신실한 과수꾼으로써 시온의 성벽들 위에 서 있으며, - 하나님의 증인에 접하기 위하여, 죄를 숨기지 않고, 잘못 행하는 자들에게 아첨하지 않을 것이고, 인정받기 위하여 그들의 형제들을 동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책망으로, 또 경고로, 또 박해 당하는 의인을 옹호하고, 명백하게 나타내어야 할 같은 진리를 똑똑히 말하고 덮어두지 않을 것이며, 어떤 자의 호의를 얻기 위하여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들이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 것이고, 이 위치를 택함이 한층 더 어려울 때에도, 완전히 그들이 의와 진리의 편에 굳게 설 것이며; 또 그들의 번영이 위태로울지라도 진리를 보존할 것이며, 또 그들이 사랑하는 자들과의 우정도 박탈당할 것이다.” [Review and Herald, September 4, 1888]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엘렌 지. 화이트가 말한 것을 내가 말한다, “이 법정 소송을 변호사들의 권력 밖으로 옮겨라. 나에게 끔찍하게 생각되는 것은, 그대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정반대 되는 길로 행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적대하여 그대가 잔인한 사업을 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게 공개될 것이다.” [Letter 301, 1905] 아무쪼록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성품이 성소의 저울에 달려질 것이다; 만일 정신적인 성품과 영적인 발달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들과 축복들로 일치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대적하여 ‘부족함’이 기록될 것이다.” [Advent Review and Sabbath Herald, March 19, 1895] 그대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으로 호출되었다. (로마서 14:10) 무엇이 그분의 심판이 될 것인가?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 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계시록 18:1-5]

“그때 나는 슬픔으로 통곡하는 다른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의 옷 위에는 큰 글자로 ‘그대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고 써여 있었다. 이들이 어떠한 무리인지 천사에게 물으니 천사는 ‘이 사람들은 한때 안식일을 지켰으나 후에 포기한 자들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그들이 큰 소리로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기다렸고 열심히 그것을 가르쳤나이다’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말하는 동안 그들의 옷에 써어진 글자를 보면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나는 그들이 깊은 죄악의 샘에서 마시고 나머지는 그들의 발로 더럽히고 - 안식일을 짓밟음을 - 보았는데 이것이 그들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인 이유이었다.” [EW 37]

그대가 당황하여 질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써, 어떻게 ‘나머지를 [우리의] 발로 더럽히고 [또] 안식일을 짓밟았는가?’ 구주께서 지상 생애 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똑 같이 행하였는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이 준수한 안식일”임을 그대가 믿는가? Yes, 그 “주의 안식일”을 같은 법의 글씨 그대로 준수하였다.” 그렇지만, 종교적인 영으로 무엇을 준수하는가? 이. 제이. 와그너가 그의 소책자에서 “세 가지 안식일들”을 칭하여 적절하게 진술하기를 “유대인의 안식일이 주님의 안식일과 같은 날에 떨어지지만, 어떤 의미로도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이 나타내는 것들은 오직 사람 그 자신과 그 사람 스스로의 사업이다.” 그대의 사업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또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고 (히브리서 6:6) 몇 번이고 되풀이하였다. 그대가 “합법적인 남편”을 이혼하고 오직 시저와 함께 “부정한 결합”을 추구하였다. 안전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대가 세속적인 명성을 추구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만들고,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고 하였다. (창세기 11:4)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법을 무효로 하는 백성들이, 그들 자신들을 용의 편에 놓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을 박해한다.” [Signs of the Times, April 22, 1889] “과거 여러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참 교회를 박해한 동일한 정신은 장애에도 하나님께 그들의 충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행동으로 추구할 것이다.” [Prophets and kings. p. 605]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벨 시대 이후로 모든 성도들의 피를 흘린 죄를 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과 똑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고자 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The Great Controversy. p. 627]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발 아래 짓밟히고 사단의 종들은 승리를 거둔다.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시고, 진리는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 자기 자신의 영적 쇠퇴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인하여 탄식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사자들,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든 자들에게 명령하신다.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공흠을 베풀지도 말고 처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SDA] 교회 - 곧 여호와와 성소가 - 하나님의 진노의 타격을 제일 먼저 받게 되리라는 것을 보게 된다. 고대 사람들, 곧 하나님께로부터 큰 빛을 받고 백성들의 영적 유익을 위한 수호자로 서 있던 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저버렸다. 그들은 지나간 날들에서처럼 우리가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의 두드러진 표현을 기대할 수 없는 위치에서 있었다. 시대는 바뀌었다. 이 말이 그들의 불신을 굳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서는 선을 행치 않으실 것이며 악도 행치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너무도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는 음성을 나팔 소리처럼 높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물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결코 다시 알려 주지 않을 자들에게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부르짖음이 일어난다. 이 짓지 않을 병어리 개들은 바로 하나님을 거스린 보복을 당할 자들이다. 남자들과 처녀들과 어린아이들이 모두 함께 멸망할 것이다.” [5T 210,211]

하나님의 거룩한 법의 완전한 거울 안에서 그대가 그대자신을 볼 수 없는가? 주께서 마지막 때에 치료의 손길을 베푸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그대의 배신 행위로부터 그대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그대가 이해할 수 없는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네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신명기 30:19) “오 [대총회, 명목상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여], 네가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마태복음 23:37,38) 그렇지만, 그대가 개인적으로 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에게 순종하여 ‘다가오는 진노로부터 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의인이 돌이켜 자기 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여 그 안에서 죽을 때 그가 행한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또 악인이 돌이켜 그가 범한 악에서 떠나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할 때 그는 자기 혼을 구원하리라. 그가 숙고하고 돌이켜 그가 범한 그의 모든 행악들로부터 떠나면 반드시 살리니, 그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집은 말하기를 ‘주의 길은 공평치 아니하다.’ 하는도다. 오 이스라엘 집아, 나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니, 각자 자기 행실대로 심판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리고 너희의 모든 범죄로부터 돌이키라. 그리하면 죄악이 너희의 패망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범한 너희의 모든 행악들에서 떠나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 오 이스라엘 집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죽는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은 돌이켜서 살라.” [에스겔 18:26-32]

**창조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진심으로 그대를 초청합니다.**

2007년 4월